

광주교육청, 교장단 무더기 공짜 해외연수 논란

초·중·고 313명... 중국 역사탐방 추진 비용 전액 부담... "선거 선심성" 비난

광주시교육청이 관내 초·중·고 교장 전체를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다른 해외연수의 경우 비용 30%를 자부담하는 것과 달리 이번 교장단 연수는 전액 교육청이 부담해 형평성 시비와 함께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연수기간이 국가비상 대비 훈련인 을지연수 기간과 겹쳐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지역 단설유치원 원장과 초·중·고 교장 313명 전체를 대상으로 중국 역사 문화연수를 실시한다. 이 사업은 내년까지 2년간 진행된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초등 75명, 중학교 44명, 고교 75명 등 총 194명의 교장을 중국 동북지방·백두산·독립운동 유적지 등으로 4박5일 또는 4박6일 일정으로 역사탐방을 보낸다. 비용은 1인당 150만원씩 총 2억9100

만원을 책정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이번 해외연수에 참여하지 못한 교장들은 올 겨울방학이나 내년에 보낼 계획이어서 전체 소요예산은 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제정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와 '동북아 한민족교육 교류협력 조례'에 따라 교장단 해외연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기와 방법을 놓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교장단을 상대로 이처럼 대규모 인원을 한꺼번에 해외연수 보낸 적이 없어 이번 해외연수가 내년 선거를 위한 선심성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번 해외연수를 위한 예산 수립

특히 장휘국 교육감 취임 이후 학교장 권한을 크게 축소해 교장들이 반발하는 등 불편한 관계가 지속됐는데, 이번 연수를 통해 관계 개선하려는 의도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구나 공무원 해외연수 때 본인이 부담하는 자부담을 이번에는 한 푼도 내지 않도록 한 것도 선심성 사업이라는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 초등학교 교장의 경우 정년 잔여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교장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연수 일정도 을지훈련 기간과 겹쳐 연수 시기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과정에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지난해 광주시의회에서 고교 교장 해외연수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초·중학교 교장까지 함께 가는 것으로 오히려 확대·통과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교육청은 같은 사업인데도 초등교장 단테마연수, 학교장역사문화교육체험, 학교관리지역사테마연수 등 사업이 각자 다른 것처럼 품수를 부풀리는 지적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에 따라 지난해부터 계획을 짜 마련한 행사로 광주시의회 예산 심의에서도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 초중고 18곳 교장 공모제 확정

전남지역 18개 초·중·고등학교 교장을 공모한다. 전남도교육청은 3일 학교 변화를 선도할 유능한 교장을 선발하기 위해 '교장공모제 추진학교' 18개 학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장 공모제 학교는 소호초, 골약초, 간문초, 문척초, 영남초, 노동초, 벌교중앙초, 손불서초, 기산초, 백수초 등 초등학교 10곳이다. 중학교는 순천삼산중 1곳이고, 고등학교는 목포고·순천여고·해남고·호남원예고·한국향만물류고·벌교상고·완도수고 등 7곳이다. 이들 학교는 5월 1차 모집공고를 내 11일까지 지원자를 받는다. 지원자가 없거나 1명일 경우 다시 일주일간 2차 모집공고 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장대비 속 본격적 장마 3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주변에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지역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간헐적으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임을 위한...' 기념곡 지정 서명 100만 돌파 '5·18비하' 대구서 치열한 법정공방

충남 등 각 지역 시민·학생 동참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기념곡 지정·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참여자가 3일 100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참여자의 상당수가 광주·전남은 물론 충남 등 타 지역의 고교생이 많아 이번 서명운동이 역사 바로잡기 차원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기념곡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 5월 28일부터 시작한 서명운동에 이날 현재 100만 6862명이 참여했다. 서명운동 방식과 참여 인원은 ▲125개 기관단체의 인터넷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서명 3만8771명 ▲광주지역 219개 기

관·단체가 직접 받은 96만3568명 ▲전국 각 지역 자원봉사자를 통해 받은 4523명 등이다. 특히 충남 대전여자고등학교의 한 여고생은 "인터넷 '일베' 사이트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애국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다"며 뜻을 같이 한 학생 537명의 서명을 받아 광주시에 보냈다. 화순 능주고등학교 457명, 함평 학다리고등학교 304명이 참여했고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 평화위원회는 광주지역 성당에서 받은 1만6764명의 서명지를 전달했다. 광주 금호고등학교 정치외교동아리(회장 이현일)는 광주지역 21개 고등학교 학생 5180명의 서명지를 전달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사모 회원 '북한군 침투' 관련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 3일 대구지법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펼쳐졌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윤권원 판사로 열린 이날 재판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신경진(58) 회장 등이 "5·18은 북한군이 침투해서 한 짓이다"는 식으로 민주화운동을 비하했다며 '전사모'(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 장모씨 10명을 2009년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사자명예훈장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의 고소된 전

사모 회원 장씨 등은 2009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신경진 회장에 대한 검찰측 신문은 수월하게 진행됐으나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은 서석구 변호사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여러가지 자료를 제시하며 신 회장에 대한 질문공세를 이어갔다. 1시간 넘게 계속된 변호인측 신문 과정에서 변호사는 북한에서 출간·발행된 자료들을 제시하며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음을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일부 방청객들이 거세게 항의해 재판이 수차례 중단될 뻔 했고, 윤 판사는 방청객들에게 퇴장시키겠다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연남뉴스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23분 해질 19시 51분 달출 02시 12분 달몰 16시 26분

장마 계속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돌풍 부는 곳 있겠다.

광주	비	23/27°C
목포	비	23/26°C
여수	비	23/25°C
나주	비	23/27°C
완도	비	23/27°C
구례	비	23/27°C
강진	비	23/26°C
해남	비	23/27°C
장흥	비	23/27°C
순천	비	23/27°C
영광	비	22/26°C
진도	비	23/26°C
전주	비	24/28°C
군산	비	23/26°C
남원	비	23/27°C
옥산도	비	23/26°C

식중독지수 지의선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위험 보통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위험 보통 낮음

◇주간날씨 기상내년전환: 국면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5(금)	6(토)	7(일)	8(월)	9(화)	10(수)
날씨	☁	☁	☁	☁	☁	☁
최저/최고	24/28	23/27	23/28	23/28	23/29	23/30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안타깝다"

광주는 이성환 경찰청장, 김용판 전 청장 기소 관련 소회

이성환 경찰청장은 3일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사건으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박모 경감이 기소된 것과 관련,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광주지방경찰청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재판이 시작됐고 여야가 국정조사도 합의했으니 밝혀질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이 청장은 이날 발언은 전국을 돌며 진행중인 '국민과의 눈높이 치안 간담회'에서 언급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이 청장은 또 일선 경찰관들의 의무 위반행위와 관련, "연도별 통계를 보면 그나마 줄고 있지만 완전히 없어질 수 있도록 무거운 처벌을 하겠다"면서 "직원들이 위법 행위로 당하는 불이익이 크다는 것을 느끼고 스스로 조심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우기자 dok2000@

그는 광주 경찰청 차장 공석, 동부경찰서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치안 공백이나 직원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청장은 이날 4대 사회악 근절 활동과 연계, 광주경찰청을 마지막으로 전국 지방청을 돌며 시민·사회단체, 관련 기관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쳤다. 이 청장은 "4대악 척결이 하루 아침에 끝나지 않는 만큼 관리 목표를 세워 달성하고 체감지수가 좋아질 때까지 활동을 벌이되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우려가 있는 법질서 확립, 민생치안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LYSIDIA 엘리시아 www.elysia.co.kr

"축복 받은 집" ... **씨푸드 뷔페 엘리시아**

새롭게 태어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새로운 감각으로 탄생한 스페셜 메뉴
행복하고 특별한 모임을 만들어드립니다!

예약문의 엘리시아 예약실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062)385-3000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완성되는 곳!
엘리시아 컨벤션 웨딩홀 (나주)
☎ 061-332-1111

- 150석 규모 웨딩홀
- 100석 규모 연회장
- 50석 규모 연회장

▶이음예매 (취미 1인/1인)
★平日 20,000원~25,000원
★주말·공휴일 25,000원

전국꽃배달서비스 365일 24시간 www.flowerelysia.co.kr
062)513-4000

엘리시아 꽃배달 OPEN기념 이벤트!
꽃, 화분 등 5회 이상 주문시 [5만원 이상]
엘리시아 상품권 5만원권 증정
꽃 + 엘리시아 식사권 묶음 상품 30% 할인판매 "엘리시아 꽃배달" 홈페이지에서 구입가능

엘리시아 컨벤션 안내 (별관)
고급스러운 분위기연출과 차별화된 음식으로 초대하신 분들을 귀하게 모시겠습니다.

60석 80석 100석
120' 대형 빅프로젝트 및 음향시설 완비

Special Service
특별한 모임을 만들어드립니다

결혼 피로연 / 각종 세미나 / 워크샵
돌잔치 / 회갑 / 칠순연
이용요금 ₩27,000~₩33,000

나고야
제철음식 일식전문점
엘리시아 협력업체
예약전화(초밥 포장 및 배달가능)
385-9696
상무병원 응급실 건너편 / 주차장 완비

정식 코스요리

참조기탕	12,000원	A코스	40,000원
생우럭탕	12,000원	B코스	50,000원
대구탕	15,000원	C코스	60,000원
생선초밥	12,000원	(1인기준 2인이상)	
특초밥	15,000원	주말 가족특선	
생선구이	15,000원	4인 한상차림 100,000원	
굴비정식	20,000원	(토요일,공휴일에 한함)	
나고야정식	25,000원		